

# 프랑스 내 ‘베르베르인’의 이민 과정과 그 위상에 관한 연구\*

임 기 대  
(한국의외국어대학교)

## ❖ 국문초록

프랑스에서 이민자 문제는 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마그레브 지역 이민자 문제는 다문화 국가 프랑스에서 늘 대립과 갈등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소지를 주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마그레브 이민자 문제가 서구와 적대적 혹은 대립적 의미의 ‘아랍-이슬람’ 영역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역 출신자를 ‘아랍-마그레브인’으로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적어도 마그레브 지역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명명 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그레브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는 마그레브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베르베르인 중에서도 카빌인이 많은데, 이들은 언어와 문화, 사고방식 등에 있어 아랍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삶의 방식 등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수백 년 동안 아랍의 지배를 받으면서 저항으로 상징되는 반아랍적 정서가 이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정서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분할정책의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362-2010-1-B00003). 본 연구는 2015년 1월~2월 기간에 알제리 카빌리 지역과 파리의 알제리인 집단거주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 내용, 그리고 관련 문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세한 녹취와 사진 자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연구소 자료>(http://www.afstudy.org/)란 에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카빌인의 특징을 주목하면서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정착해가는 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카빌인의 프랑스 내 이주는 마그레브 지역 출신으로 는 첫 이민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이민 과정과 정체성 찾기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를 통해 카빌인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 가며 문화운동의 주체로 거듭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그레브는 아랍 이슬람이다’라는 등식의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랑스와 알제리 내에서 베르베르어 사용이 빈번해지고 그 위상이 높아진 데는 우연한 현상이 아닌 오랜 기간 프랑스 내 이민자의 정착 과정이나 문화운동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주제어 : 베르베르인, 카빌인, 프랑스, 교차와 혼성, 이주/이민

## 1. 들어가는 말

프랑스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 이런 와중에 언젠가부터 마그레브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이민자 2~3세대에게 붙여진 ‘보르’(beurs)와 같은 용어가 대체해왔다. 게다가 역사적 과정에서 그 흔적으로 남아 있는 ‘피에-누아’(pied-noir), ‘하르키’(Harki), ‘마그레뱅’(maghrebin), ‘고르바’(ghorba)<sup>1)</sup> 등의 용어가 이민자 문제가 언급될 때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그레브 출신 이민자 2세나 마그레브와 관련된 용어들이 공적 영역에 등장하고 프랑스적 가치 논쟁을 촉발시키는 일이 많아지기도 했다. 2015년에는 샤를리 에브도, 11·13 파리 테러 등 무슬림이 연루된 일련의 여러 사건이 발생하며, 마그레브 이민자에 대한 혐오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프랑스 내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이다. 더 이상 ‘소수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프랑스 내 다양한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려는 활동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마그레브 출신 이민자를 논할 때 눈에 띄는 현상은 이 지역 출신자에 대해

1) 국내에도 잘 알려졌듯이 피에-누아는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인, 하르키는 알제리 전쟁 당시 프랑스를 위해 부역한 알제리인, 고르바는 외국에 살고 있는 알제리인을 지칭한다.

모두 모로코인, 알제리인, 튀니지인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을 '아랍-마그레브인'으로 통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대부분은 들뢰즈식 표현을 빌리자면 마그레브 지역의 '특이점'(singularité)을 형성하는 '베르베르인'이다. 게다가 이들 베르베르인 중에서도 알제리의 카빌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시대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현재까지 이어졌다. 마그레벵,<sup>2)</sup> 고르바, 베르베르인, 알제리인, 카빌인 등의 다양한 언표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준다. 이 언표들은 이웃한 향과의 접촉 여부에 따라 영토화하고, 또 다른 영역을 만드는 탈영토화 과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민자가 테러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프랑스 내 소수자 운동 집단이 되기도 하며, 다시 마그레브로 돌아와 베르베르 운동을 이끄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마그레브 이민자, 혹은 아랍 이민자라는 틀이 아닌 '카빌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프랑스 내 '이민(immigration)'<sup>3)</sup> 과정과 그 위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는 아랍-마그레브 이민자라는 포괄적인 단위가 아닌 미시적인 단위에서 발생하는 소수자의 문제를 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알제리의 카빌인을 주목할 것이다. 이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비롯하여 프랑스 내 첫 마그레브인의 이민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그레브 출신 첫 이민자가 카빌인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들 카빌인의 이민 과정과 정체성 찾기 과정에 대해 논하면서 카빌인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 가며 문화운동의 주체로 거듭나는지를 또한 보고자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프랑스 내 이민자, 즉 '마그레브인은 아랍 이슬람인이다'라는 등식의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랑스와 알제리에 일고 있는 베르베르어의 사용이 우연한 현상이 아닌 오랜 기간 프랑스 내 이민자의 정착 과정과 문화운동과 전혀 무관치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알제리와 프랑스의 다양한 지점에서 발생한 '교차와

2) 본고에서 마그레벵과 마그레브인을 섞어서 사용했다. '마그레벵'은 '마그레브인'을 지칭하는 프랑스어이다. 문맥에 따라 이 두 용어를 섞어 사용했음을 밝힌다.

3) '이주(migration)' 혹은 '이민(immigration)'이라는 용어는 때로는 혼동의 여지를 줄 수 있다. 본고에서 '이주'는 독립 이전 알제리인의 프랑스 내 정착 과정, '이민'은 독립 이후 프랑스 내 정착 과정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다.

혼성' 과정을 카빌인을 통해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프랑스에서 카빌인의 중요성

프랑스에서 알제리인 혹은 마그레벵을 만날 때 우리는 Vous êtes algérien ou marocain?(당신은 알제리인이세요 혹은 모로코인이세요?) 혹은 Vous êtes arabe?(당신은 아랍인이세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알제리인의 경우 상당수가 Non, on est kabyle(아니요, 우리는 카빌인입니다)이라고 대답하는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특히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경우 5구, 11구, 15구, 18구, 19구에 집중적으로 카빌인이 분포해 있다. 이들 지역에서 카빌인은 티지우주(Tizi-ouzou)를 중심으로 하는 대(大)카빌리(Grande Kabylie) 인가 혹은 베자이야(Bejaïa)를 중심으로 하는 소(小)카빌리(Petite Kabylie) 인가에 따라 지역권을 달리하여 살고 있다.<sup>4)</sup> 최근에는 동북부 지역이나 북부 '방리외'(banlieu, 파리 인근 지역)지대에 카빌인의 거주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Les gens de Tizi Ouzou vont se retrouver dans les XV<sup>e</sup>, XVIII<sup>e</sup> et XX<sup>e</sup> arrondissement de Paris, alors que les gens de la vallée de la Soummam vivront dans le V<sup>e</sup> et le XI<sup>e</sup>.

(티지우주 출신 사람들은 파리 15구, 18구, 20구에서 볼 수가 있는 반면, 솜맘 계곡<sup>5)</sup> 사람들은 5구와 11구에 살고 있다.)<sup>6)</sup>

- 4) 수도 알제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 80km 이후 지역부터 펼쳐지는 동부 산악과 해안지대이다. 산악지대를 가르켜 일반적으로 대(大)카빌리라 부르고, 해안지대를 소(小)카빌리라 부른다. 이들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는 각각 티지우주와 베자이야이다. 이 구분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편의상의 구분이다. 카빌리의 현재 인구는 대략 8백만 명으로 알제리 전체 인구의 1/4 수준이다. 카빌어를 주로 사용하며, 프랑스어에 일상적으로 익숙한 지역이며 반정부적 성향을 보인다(임기대 2015).
- 5) 알제리 현지에서 솜맘(Soummam) 계곡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크다. 사하라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와 식수로 공급되고, 식음료로 생산되기도 한다. 독립전쟁 당시에는 대프랑스 투쟁 지역의 거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소(小)카빌리의 중심 도시 베자이야에 인접해 있다.

파리에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프랑스 전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알제리 사람이 많은 프랑스의 리옹이나 마르세유는 카빌인이 상대적으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영불해협 북부와 벨기에에 인접해 있는 파드칼레(Pas-de-Calais)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 지역 인근 도시 릴(Lille)에도 카빌인이 많다. 카빌인과 알제리인을 굳이 비교하는 이유는 알제리 내에서조차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역별로 다르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알제리인을 만나 출신지를 물을 때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카빌인은 '아랍인'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스스로를 카빌인이라고 답하곤 한다. 이 말에는 '우리는 아랍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프랑스에 사는 알제리인 사이에도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파리의 뷔트쇼몽(Buttes de Chaumont) 공원, 즉 파리 19구와 전철역 바르베-로슈슈아르(Barbès-Rochechouart)역 인근에서는 알제리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알제리인의 말을 빌어보면 마치 '코리아타운'처럼 이 지역은 '알제리타운'으로 형성되어 알제리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한다.<sup>7)</sup> 이들 중 상당수는 카빌인이며, 이 일대에 알제리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레스토랑은 대개 카빌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sup>8)</sup>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들 지역에서는 알제리인, 모로코인, 튀니지인이 모이는 공간도 각각 다르게 형성되어 있지만 크게 구분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들 모두를

6) Maralasky, Qui sont les Berbères de France?, 2011.01.31 (검색일 2016.01.21)

7) 알제리인이 프랑스의 특정 지역을 말할 때 지칭하는 방식은 늘 이렇다. 예를 들어 알제리인은 자국민이 많은 마르세유의 경우를 일컬어 49번째 '윌라야(Wilaya, 아랍어인 이 용어는 우리말로 '도(道)에 해당하는 말이다)라고 부른다. 알제리에는 48개의 '윌라야'가 있는데, 마르세유가 49번째 '윌라야'라고 할 때는 그만큼 이 도시에 알제리인이 많고, 자신들의 정체성까지도 부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8) 카빌인은 알제리 내에서도 유독 관광과 외식업에서 탁월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알제리의 대부분 상권도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카빌인은 프랑스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알제리 최대 민간기업인 Cevital의 경우 2012년 프랑스 가전제품 업계 1위 회사 Fagor-Brandt를 인수했으며, 2014년 이태리 철강업 1위 회사 Lucchini Piombino를 인수하여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알제리인이 밀집한 파리에서도 카빌인은 외식업계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

‘아랍-마그레브’으로 일컫고 있다. 어쨌든 상당 부분의 상권과 시장권을 형성한 카빌인은 세계적인 도시 파리에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마르세유, 니스, 리옹, 알자스, 릴, 브르타뉴 등에서도 마그레브인은 다양한 분포를 보일 것이며, 이들 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알제리인을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일 것이다.

이렇듯 프랑스에서 알제리인, 그중에서도 카빌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프랑스 내 마그레브 이민자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마그레브이기 보다 베르베르인, 더 나아가 카빌인의 영향력이 오히려 마그레브이라는 총칭적 용어보다 중요한 역할과 위상을 프랑스 내에서 차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미 잘 알려졌다듯이 프랑스와 카빌리 관계는 1830년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1830년 시작된 알제리 식민지배는 이후 1871년 카빌리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식민 군은 프랑스의 행정 방식과 프랑스어 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 카빌리에 이식시켰다. 다른 지역과 달리 카빌리에 공을 들인 이유는 베르베르와 아랍을 분리시키려는 식민 정책의 일환이었다. 게다가 여러 베르베르인<sup>9)</sup> 중에서도 카빌인은 프랑스가 선택한 전략이었다. 문화정책이란 것이 한 국가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정책을 펼쳤는지를 프랑스와 알제리에 있는 카빌인은 잘 알고 있다.<sup>10)</sup> 식민 정책은 알제리 내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카빌인을 대량으로 양산했고 오늘날까지 카빌리 현지에서조차 아랍어와 비교할 때도 프랑스어를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는 또한 ‘아랍’에 반하면서 베르베르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Ainsi, le «mythe kabyle» avait changé progressivement

9) 마그레브에는 대략 40개 정도의 베르베르인이 지역별로 다르게 분포해 있다. 가장 많은 인구는 모로코의 솔피흐와 알제리의 카빌인이다.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된 종족은 사하라 일대에 걸쳐 있는 투아레그족이다.

10) 식민 지배 당시 시기별(초기, 중기, 말기), 분야별(음악, 미술, 교육, 언론 등) 식민화 과정에 대해서는 Camille Risler(2004)를 참조할 수 있다.

d'orientation. Il ne s'agissait plus de prôner sa complète assimilation mais au contraire d'affirmer la spécificité du caractère berbère considéré comme une arme contre arabisme

(그렇게 해서 《카빌인의 신화》는 점차 방향을 바꿨다. 더 이상 완전한 동화를 권장하지 않은 반면, 아랍주의에 반하는 무기로 간주되는 베르베르의 특수성을 주장하게 되었다)<sup>11)</sup>

그 결과 카빌인은 알제리 내에서도 아랍 이전의 베르베르적 정체성을 찾아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식민 정책으로 시작된 이민은 프랑스 내 알제리인의 정체성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슬람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 이상으로 이제는 프랑스어에 침식당한 언어 사용 문제가 이들의 정체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언어 사용으로 복잡해진 정체성은 외부 세계에 대해 종교적 성향보다 훨씬 덜 배타적인 존재로 자리할 수 있게 했다.<sup>12)</sup> 하지만 알제리 본국에서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에서 이슬람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언어 사용만큼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정체성에 저항감을 내보이는 카빌인은 종종 알제리 내에서 배타적인 존재가 된다. 실제로 카빌리에는 이슬람국가 알제리의 정체성과는 달리 기독교인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카빌인이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데 있어 중요한 변화는 삶의 변화와 이주이다. 카빌인은 전통적으로 농업(대카빌리 지역)과 해양업(소카빌리 지역)에 종사해왔다. 하지만 프랑스의 식민지배와 이민은 카빌인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런 삶의 변화는 정착민을 유목민 혹은 이주민으로 변화시켰다.<sup>13)</sup> 실제 카빌인은 카빌리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알제리 내에서도 대도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수도 알제 시의 경우 인구의 80%를 카빌인이 차지할 정도이다. 카빌인은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로도 적극적으로 이주하고 있다.<sup>14)</sup> 폐쇄적이고 저항적이었던 카빌인이 21세기 전 지구촌 시대

11) Camille Risler(2004), *ibid.* p.93.

12) 아민 말루프, 『사람잡는 정체성』, 박창호 옮김, 이문과 실천, 2006. 160쪽.

13) 베르베르인 중에서도 카빌인과 다른 지역의 베르베르인, 그리고 카빌인과 아랍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Pierre Bourdieu(1961) 를 참조할 수 있다.

14) 최근의 이민 경향은 주로 캐나다 퀘벡 지역으로 향한다. 프랑스의 이민제한정책과

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방식 변화는 특히 대카빌리 지역이 심했다.

아랍 이슬람의 정복 전 카빌리에는 로마의 속국인 누미디아(Numidie, 기원전 300년~기원전 46년) 왕조가 있었다. 아랍의 침략 이후에는 이슬람으로 동화하기도 했지만, 지배적인 아랍에 항복하지 않고 산악지대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카빌인도 있었다. 이후 카빌리 지역은 스페인과 오스만터키,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저항과 문화적 ‘교차와 혼성’을 이루었다. 이런 와중에 카빌인은 이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프랑스의 식민지배는 이 지역을 산악지대와 해안지대로 나누고, 이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수도 알제를 비롯한 프랑스에 이주시켰다. 프랑스를 위한 부역자, 혹은 알제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랍에 차별을 받듯이 프랑스인에게 차별을 받은 카빌인은 프랑스에도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프랑스의 차별 정책으로 프랑스인에게 착취 대상이 되면서 이들은 저항을 시작했고 이후 독립전쟁에도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에서 카빌인의 위상은 매우 복잡하고, 마그레브 전체 베르베르인의 위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베르베르성’을 되찾기 위한 투쟁과도 같은 것이다. 현재 알제리의 경우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베르베르성’을 되찾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프랑스 사회에서 카빌인은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에 힘입어 베르베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단순히 베르베르 운동, 카빌리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차원을 넘어 프랑스 내 베르베르 운동을 주도하며 소수자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카빌인이 주도하는 프랑스 내 베르베르 공동체는 양성평등, 이민자 문제, 실업 문제, 인종 차별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sup>15)</sup> ‘이슬람 혐오증(Islamophobie)’이 확산되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

무관하지 않지만 캐나다의 경우 적극적인 이민을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빌인은 프랑스어 구사에 문제가 없어 정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벨기에의 경우 많은 베르베르인이 있는 데, 주로 모로코의 베르베르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5) 본 연구자는 2015년 1월~2월 사이 베르베르 공동체인 프랑스 베르베르연합(Coordination des Berbères de France, CBF)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인터뷰하였

‘아랍’이라는 인식은 카빌인에게 오히려 득이 될 게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카빌인을 비롯한 베르베르인 입장에서는 ‘아랍’과 거리를 두려는 베르베르 운동이 어찌면 당연해 보인다.

카빌인의 베르베르 운동은 직간접적으로 알제리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 프랑스 내 이민자와 현지 카빌인이 대부분 가족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알제리의 카빌인은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 사회에서도 카빌어 문화, 베르베르어 문화 활성화라는 변화를 주도해가고 있다. 이는 ‘소수자’로 살아가던 프랑스와 알제리에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1세기 들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카빌어, 혹은 베르베르어 사용과 문화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카빌인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문화 운동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카빌인은 이제 탈영토화하면서 기존 ‘알제리는 아랍 이슬람이다’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 III. 탈영토화 된 주체로써 베르베르인과 카빌인의 프랑스 내 이주

카빌인의 이주는 현대 프랑스 사회에서 마그레브의 역할과 의미를 상당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단순히 북아프리카 이주민, 혹은 아랍인이라는 인식에서 카빌인은 프랑스 사회와 문화의 새로운 배치를 구성해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카빌인의 프랑스 내 이주 역사와 이후 탈영토화 된 주체로써 이들이 주목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어 보인다.

#### 1. 카빌인, 정주민에서 이주민으로

카빌인은 프랑스로 이주한 마그레브 최초의 사람들이다. 식민지배라는 알제리와 프랑스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알제리 내에서도 프랑스어와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카빌인이 프랑스 사회에 쉽게 동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쉽게 프랑스로 갈 수 있던 요인 중 하나였다. 이렇게

---

다. 이들의 프랑스 내 활동 상황에 관한 녹취와 사진 자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연구소 자료>(http://www.afstudy.org/)란을 참조할 수 있다.

일찍부터 관계를 맺고 있는 카빌인(심지어 전체 베르베르인)은 현재 프랑스 내 베르베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지만, 언제부터 프랑스에서 이들의 존재가 부각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나 통계는 없다.

Même si leur existence et leur identité propre ne sont pas clairement perçues par les Français, les berbérophones constituent l'un des plus importantes communautés d'origine étrangère en France

(베르베르인의 존재나 정체성이 프랑스인에 의해 명확히 인식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르베르인은 프랑스 내 외국인 출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이다)<sup>16)</sup>

가장 중요한 이주민 집단 중 하나인 베르베르인은 프랑스에서 늘 ‘주변부’에 있거나 ‘소수자’의 입장이었다. 이들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아랍> 혹은 <아랍-마그레브>라는 이름으로 늘 명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베르인은 프랑스에서 ‘알제리인’, ‘모로코인’, ‘튀니지인’, ‘마그레방’ 등의 이름으로 불릴 뿐이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은 ‘베르베르’라는 용어가 불릴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고, 스스로도 그런 호칭을 부를만한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던 이들의 존재감이 20세기 중후반을 전후하여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는 프랑스에서도 그렇지만 알제리에서 전개된 베르베르 운동과 전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알제리에서는 1980년대 ‘베르베르의 봄(Berber's Spring)’을 계기로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III.2 참조). 그리고 1999년 압델라지드 부테플리카( Abdelaziz Bouteflika)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민화합 차원에서 베르베르어를 ‘국가어(national language)’의 지위에 올려놓으면서 상황은 다시 한번 급변하였다. 현재 알제리에서 베르베르어는 ‘공식어(official language)’ 지정을 검토 중이다.

알제리에서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오랜 이주 과정의 산물로 베르베르인

16) Salem Chaker, 「Pour une histoire sociale du berbère en France」, Les Actes du colloques Paris Inalco, 2004. <http://www.langues-de-france.org/chaker.html> (검색일 2016.01.02)

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주 초기에 존재감이 없던 베르베르인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베르베르인의 초기 프랑스 이민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알제리에서 보낸 이민자수와 알제리 내 베르베르어 권에서 보낸 이민자들의 수치만 대략 있을 뿐이다.<sup>17)</sup> 어쨌든 초기 프랑스에 온 마그레브 이민자 상당수가 베르베르인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알제리와 모로코, 그중에서도 알제리인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상황에서 베르베르인은 단연 카빌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카빌인 다음으로 1945년부터 모로코의 수스(모로코 Agadir지역민)인이 프랑스에 들어왔다. 이후에는 카빌리와 인접해 있는 오레스 지역의 샤우이(Chaoui), 그리고 모로코 북쪽 산악지대의 리팡(Rifain)이 주를 이루면서 프랑스 내 베르베르인의 이주가 확산되었다.

Ce qui est sûr, c'est que l'immigration maghrébine vers la France (et l'Europe) a d'abord été berbérophone, aussi bien à partir de l'Algérie que du Maroc : les foyers d'émigration les plus anciens sont la Kabylie (dès le début du siècle) et le Souss (après 1945). Ces régions ont été rejointes par d'autres zones berbérophones à date plus récente : les Aurès pour l'Algérie, le Rif et la province Orientale pour le Maroc

(확실한 것은 프랑스로(혹은 유럽) 향한 마그레브인의 이민은 모로코에서 만큼이나 알제리에서 온 베르베르어 화자들이었다. 가장 오래된 이주 온상지는 (20세기 초 이래로는) 카빌리이며, (1945년 후에는) 수스 지역이다. 이 지역은 아주 최근에 다른 베르베르어권 지역(알제리의 경우 오레스, 모로코의 경우 동부 지역과 리프 지역)과 합쳐졌다).<sup>18)</sup>

카빌인의 이민사는 1871년 알제리 내에서 반프랑스 폭동이 발생한 이후부

17) 알제리인은 독립 이전에는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끊임없이 알제리와 프랑스를 오고가는데 문제가 없었다. 다른 식민국가와 달리 '프랑스령 알제리'였기에 프랑스가 원할 때 언제든지 불러오고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Benjamin Stora(2004), p.47.

18) [http://www.cbef.fr/uploaded/PDF/immigration\\_berbere\\_en\\_France.pdf](http://www.cbef.fr/uploaded/PDF/immigration_berbere_en_France.pdf) (검색일 2016.01.24)

터 시작되어 20세기 초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여줬지만 그 이전부터 이주는 존재해왔다. 지역적 특성에서도 나타나듯이 카빌리는 산악지대와 해안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었다. 해안지대 카빌리의 경우 역사적으로 지중해 패권 경쟁에서 밀려나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해적 산업만이 번성하였다. 기독교와 무슬림 상선의 납치 및 무역 거래 등은 이 지역에서 오랜 관행처럼 있었던 삶의 방식이었다.<sup>19)</sup> 그래도 바다를 앞에 두고 늘 세상과 교류했던 사람들이었기에 ‘교차와 혼성’에 대한 거부감은 덜하였다. 카빌인이 많이 몰려 살던 산악지대의 경우는 해안지대와는 달리 지배 왕조로부터 아예 배제되거나 소외당하여 왔다. 배제와 소외는 늘 카빌인이 중앙 권력(특히 아랍 이슬람 왕조)에 반발심을 갖게 하였다. 험준한 지형의 카빌리 산악지대에서는 마땅한 일자리나 생계유지 수단도 없었기에 카빌인은 타 도시로의 이주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이주’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이유이다. 산악지대 카빌리(대(大)카빌리)가 일자리 부족과 경제 활동의 부재, 인구 팽창, 차별 정책 등으로 이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듯이, 해안지대 카빌리(소(小)카빌리)의 해양무역과 해적 활동 등도 교류라는 측면에서 이주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알제리 내에서 카빌인의 이주는 오스만 터키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알제리 전역은 물론 인접 국가인 튀니지, 모로코 등의 아프리카까지 확장해갔다.

L'activité du colportage et du commerce itinérant des Kabyles est soulignée dans les archives ottomanes. Ils circulent dans tout l'espace algérien, faisant des incursions jusqu'au Maroc et en Tunisie

(카빌인의 이주 무역과 상업 행위는 오스만 터키 고문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들은 모로코와 튀니지까지 전 분야에 걸쳐 손을 대면서 알제리 전역을 돌아다닌다.)<sup>20)</sup>

19) 로마 위주의 입장이지만 로마와 지중해 지역(특히 알제리 해안가)의 교류와 약탈 등에 대한 이야기는 시오노 나나미(2009)를 참고할 수 있다.

20) Direche-Slimani, K, Kabylie, *L'émigration kabyle : Entre tradition économique et histoire politique*, Encyclopédie berbère, pp. 4046-4050.

실제 카빌인은 사하라의 최남단은 물론 이슬람 전통이 강한 사하라 북단의 음자브(M'zab, 수도 알제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지점에 있다)를 비롯하여 투아레그족이 사는 사하라 일대까지에 걸쳐 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카빌인은 돈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간다는 현지인들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이주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이들은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 카빌리에 있는 카빌인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카빌인 수가 비슷하다는 것도 오랜 이주를 통해 이들이 이주를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주고 있다.<sup>21)</sup>

카빌인의 이주와 관련하여 이들의 상행위 방식을 지적하는 현지인을 볼 수가 있다. 카빌인의 전통적인 상행위 방식은 수공업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수공업품을 팔아 돈을 벌게 되면 카빌리를 떠나 대도시에서 또 다른 상행위를 하며 정착해간다. 대도시에서 정착하면서 수공업품 일련도의 업종에서 벗어나 도심 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상가, 호텔, 외식업에 진출하여 돈을 벌어들인다. 흡사 중국인의 행위와도 같은 카빌인의 상행위는 알제리뿐만 아니라 마그레브 지역에서도 익히 유명하다. 외식 분야의 경우 카빌인을 제외하고는 현재 알제리에서 어떤 종족도(심지어 아랍인조차)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카빌인은 알제리 전역의 외식업과 호텔업을 장악하고 있다. 1972년 알제리에 최초로 생긴 국립호텔관광연구소(Institut national d'hotellerie et de tourisme)는 대(大)카빌리의 티지우주(Tizi-ouzou)에 있다. 이 학교는 알제리의 모든 관광 호텔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 가야 할 필수 코스일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sup>22)</sup> 단순히 인지도만 높은 게 아니라 중앙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입지까지 구축해놓고 있다. 중앙 정부 또한 호텔과 외식업 분야는 이곳에서 취득한 학위를 최고로 인정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그랑제콜(Grandes Ecoles) 수준의 학교가 수도 알제 시에 있는 것

21) 현재 카빌리의 카빌인이 약 3,500,000명, 알제리 및 마그레브에 흩어 사는 카빌인이 대략 2,500,000명, 프랑스에 약 1,100,000 명, 캐나다 및 기타 지역 100,000명 정도가 있다. 카빌리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카빌인은 정확한 통계가 아닌 대략적인 수치이다.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불법 이민자까지를 대략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fr.wikipedia.org/wiki/Kabyles> (검색일 2016.01.22)

22) <http://intht-tiziouzou.e-monsite.com/> (검색일 2016.01.28)

을 보면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이렇게 학위 취득과 외식 및 관광 산업 전반을 장악하면서 카빌인은 알제리 내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다.<sup>23)</sup> 경제를 장악한 카빌인이 이후 정치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 알제리에는 집권당인 민족해방전선(FLN)을 제외 한 여러 개의 정당을 카빌리에 두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는 FLN만이 독주를 했지만 1989년 이래 다당제를 실시하고 카빌인의 힘이 커지면서 FLN 정당도 카빌리 지역 정당과 연대를 하고 있다.<sup>24)</sup>

이렇듯 카빌인이 수공업품 판매를 시작으로 관광업과 호텔업까지 진출한 데에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와 무관치가 않다.<sup>25)</sup> 특히 카빌인을 식민정책(정확히는 분할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던 프랑스인은 이들의 상술을 눈여겨보았다. 그러면서 식민지배자 콜롱(colon)은 자신들이 소유한 농장과 토지 경영을 카빌인에게 맡기기도 했다. 카빌인은 서구인의 농장 경작과 경영 방식을 일찍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알제리인이 갖고 있던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산악지대의 농장 일이 계절에 따른 한시적인 일이었기에 카빌인은 콜롱이 소유한 농장을 찾아 콜롱의 경작지가 있던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주’에 적극성을 보인 카빌인은 삶의 방식에서 아랍인과 차이를 보인다. 알제리의 아랍인은 유목민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주민적 삶을 살아온 카빌인과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았다.<sup>26)</sup> 중앙집권적이

23) 대표적으로 알제리 최고 민영기업이자 알제리의 ‘삼성’이라 불리는 ‘세비탈(Cevital)’이 있다. 이 기업과 카빌인이 주축이 된 다른 기업은 가전제품, 농식품 가공품, 건설, 미디어, 방산업, 자동차, 관광 등을 장악하고 있어 알제리 산업의 중심지로 불린다. 임기대, 「최근 알제리정부의 개각에 나타난 권력 질서 변화와 한-알제리 경험과의 관계」, 『프랑스학연구』 제67집, 2014.

24) 알제리 내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민족민주연합(RND), 평화사회운동(MSP), 문화민주연합(RCD), 사회주의 권력 전선(FFS) 등이 있다. 현재 집권 정당 민족해방전선(FLN) 이외의 상위 3개 정당(RND, RCD, FFS)이 카빌리에 기반 한 정당이다. RND의 경우 현재 68석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세까지 확보하고 있다. 임기대, 「부테플리카 대통령 집권기(2005~2014)의 개각을 통해 본 알제리 내 권력 구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연구』 제93집, 2016.

25) [http://www.cbfr.fr/uploaded/PDF/immigration\\_berbere\\_en\\_France.pdf](http://www.cbfr.fr/uploaded/PDF/immigration_berbere_en_France.pdf) (검색일 2015.12.24)

고 종교적 실천을 강요한 아랍인의 차별적 행위 또한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여 오히려 프랑스인과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 실제 역사적으로 아랍인은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에게 늘 이슬람의 실천을 강요해왔다. 이슬람 학교 메데르사(Medersa)와 이슬람 종교기관 자우이아(Zaouia) 같은 이슬람 공동체만이 활성화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프랑스인이 알제리에 처음 왔을 때 놀란 것도 이들의 생활이 아랍 이슬람 공동체 이외에 다른 통일된 공동체의 단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랍과의 분리 정책을 시도하면서 프랑스적인 색을 입히려고 한 시도가 여러 분야에서 있었다. 아랍어를 프랑스어로 대체시키는 일도 있었지만, 카빌인을 콜롱과 일하는 데 참여시킨 것도 한 사례에 해당한다.

Les peuples autochtones de l'Algérie n'avaient alors pas d'autres unité que le sentiment d'appartenance à une communauté culturelle musulmane, qui servait de fondement à toute l'organisation socioculturelle et politique.

(알제리의 토착민들은 모든 사회문화적 정치 조직을 대신해주었던 무슬림 문화 공동체에의 소속감과는 다른 통일이체가 없었다)<sup>26)</sup>

이 와중에서도 더 유능한 카빌인은 프랑스로 보내지기도 했다. 이주민 선별에서 카빌인이 우대를 받은 것이지만 열악한 상황과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기도 했다. 지리적인 여건도 한몫했다. 지중해에 가까운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은 이들이 지중해를 넘어 프랑스로 가는 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했다.

## 2. 알제리 내의 베르베르 정체성 찾기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명이 거쳐 간 카빌리가 탈영토화의 가장 극단에 있

26) 사하라의 투아레그족을 제외하고 베르베르이 유목민적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알제리의 아랍족은 바누 힐랄(Hilal), 바누 참바(Châamba)가 주를 이루고, 이들의 삶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노마드(유목민)이다. 여기에서 바누(Banu)는 아랍어로 '부족'을 일컬으며 바누 힐랄은 11~12세기에 집단으로 이주했으며, 바누 참바는 15세기 전후로 마그레브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베두인으로 마그레브 유목민과 삶의 방식이 구별된다.

27) Risler Camille(2004), p.16.

게 된 것은 프랑스와의 만남 이후이다. 프랑스와 알제리의 접촉은 식민 지배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주’는 베르베르의 정체성 찾기 운동과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졌고 이후 알제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했다. 동시에 프랑스 내에 정착한 베르베르인은 소수자 운동을 전개하면서 프랑스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는 알제리 내 분열정책을 목적으로 카빌리의 우수 학생을 프랑스로 유학 보내 프랑스어와 문화를 보급시켰다. 카빌리에서는 카빌어 학교를 프랑스 정부에서 관리하고 비용 부담을 하며 8개의 학교를 세워 주기도 했다.<sup>28)</sup> 당시 알제리인 전체의 취학률(3%)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에 비하면 과격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무슬림적 정체성이 강했던 알제리인(특히 엘리트 무슬림)은 프랑스 학교에 취학하는 대신 중동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카빌리에 집중적으로 프랑스식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취학도 카빌인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이다. 이들 중 소수 학생은 선발되어 프랑스로 보내지기도 했다.

다른 한편 유학이 아닌 이주가 시작되기도 했다. 20세기 들어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프랑스 내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식민지 인력을 데려와 충당했다. 이 당시에는 알제리의 카빌인을 대거 프랑스에서 받아들였다. 1916년 <노동자 담당부>(Service ouvrier)가 생기면서 군 파병으로 공백이 생긴 프랑스인을 대체할 인력으로 알제리인을 주로 모집했다. 언어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알제리인, 그중에서도 프랑스 교육 혜택을 받은 카빌인이 일차 징집 대상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전쟁이 끝날 무렵 본국으로 돌아가 실제 이민자로 집계되지 않지만, 최초의 이주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sup>29)</sup>

제1차 세계 대전의 징병을 포함하여 이민이나 노동, 유학을 위해 프랑스에 간 카빌인이 1920년대를 전후하여 새로운 사상에 심취했다(III.3 도표 참조). 당시 불기 시작한 프랑스의 사회주의, 이후 1930년대 ‘네그리튀드

28) Camille Risler(2004), p.108.

29) 2015년 2월 국립이주민역사관(Palais national de l'histoire de l'immigration)에서 개최된 전시관 자료에서 필자가 참조한 것임.

(Négritude)'의 영향을 받아 카빌인은 물론 보통의 알제리인이 대거 참여하여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했다. 이때부터 정체성 찾기 운동이 진행되었지만, 본격적인 독립운동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내부의 분열이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카빌인은 중동에서 교육받은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을 위해 투쟁했지만 서로 간의 지향점은 달랐다. 카빌인 중에는 아랍어보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면서 베르베르적 정체성을 갖고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아랍 이슬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다른 독립운동가들(엘리트층)은 그 반대에 있었기에 충돌은 불가피했다. 이때 파리에서 나타난 단체가 '젊은 알제리인(Jeune Algérien)'이다. 이 단체는 프랑스어와의 공존을 통해 투쟁했던 단체이다. 1912년 창립되어 적극적인 프랑스어 동화정책을 추구한 운동단체로 주로 알제리 문인이나 지식인, 여성 지식인이 많이 참여했다. 이 단체 가입원은 독립운동을 펼치면서도 격렬한 방식이 아닌 인권적인 차원에서 프랑스인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늘날 프랑스와 알제리의 베르베르 운동의 모태가 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프랑스적 보편적 가치에 따른 독립운동을 지향했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Elites qui se retrouvèrent dans ce mouvement *Jeune Algérien* ainsi que dans les cercles et associations liés à cette mouvance, qui défendaient les idéaux républicains et laïcistes et voulaient promouvoir la culture française et les «Lumières»"

(엘리트들은 <Jeune Algérien> 운동과 그 영향권에 결부된 단체나 연맹에 투신했고, 공화국과 정교분리주의의 이상을 옹호한 사람들이다. 이들 엘리트들은 또한 프랑스 문화와 «계몽주의»를 촉진시키려 했던 사람들이다)<sup>30)</sup>

알제리 독립전쟁(1956~1962)은 정체성을 두고 대립과 반목을 해 온 알제리인을 하나로 단결시켰다. 프랑스에 협력 한 수만 명의 알제리인이 있기도 했지만,<sup>31)</sup> 독립전쟁은 국민을 하나의 통합체로 만들어주었다. 소수 종족인

30) Maché Alain(2006), p.303.

31) 하르키(Harkis)가 대표적이다. 독립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에 협력한 알제리인을 일컬으

카빌인이 정체성의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독립국 탄생을 열망하는 데는 서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독립 이후 카빌리의 알제리 독립전쟁 영웅들은<sup>32)</sup> 알제리 서부 도시를 중심으로 한 틀렘센(Tlemcen)<sup>33)</sup>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모로코 쪽의 독립운동세력(이 두 지역이 현대 알제리 사회에서 권력을 쟁취 유지하고 있음)과 대립각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초대 대통령 벤 벨라(Ben Bella, 1916~2012)나 제 2대 대통령인 부메디엔(H. Boumedienne, 1932~1978) 등과 같은 알제리 영웅은 독립 후 아랍 이슬람화 정책을 통해 카빌리 출신자들을 제거했고, 동시에 베르베르문화를 억압하였다. 1962년에는 베르베르어 강의를 알제리 내에서 폐지하기도 했다. 아랍 이슬람화를 주창하고 아랍성이 강한 알제리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카빌리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독립 후 집권한 권력자들은 또 다른 베르베르족인 동부의 샤우이족과는 연대해가며 카빌리를 고립/분열시키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P. Bourdieu)에 따르면 샤우이족(Chaoui)<sup>34)</sup>은 베르베르이면서 아랍에 호의적이고 프랑스에 적대적인 종족이라고 한다. 이들은 교육이나 종교적 관례에서 이슬람에 호의적이며 독립전쟁 당시에는 반프랑스 노선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베르베르인이지만 아랍어를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아랍식 관행에 익숙한 종족이기도 하다. 이들은 서부 지역으로 상징되는 알제

며, 그 수는 수만 명에 달했다. 독립 이후 이들은 알제리에서 영구 추방되었다.

- 32) 대표적인 인물로는 Abane Remdhane, Krim Belkacem, Hocine Ait Ahmed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사망한 Hocine Ait Ahmed(1926~2005.12)는 알제리 유일 정당 민족해방전선(FLN)의 독립 전쟁 당시 창당을 이끈 주역 중 한명이었다. 카빌인으로 민족독립운동을 이끌었지만 독립 후에 권력에서 배제되며 1963년 알제리 사회주의 힘전선(Front des forces socialiste)를 창당하였다. 하지만 1966년 스위스로 망명하여 2015년 사망할 때에서야 자신의 고향 티지우주에 묻혔다. [https://fr.wikipedia.org/wiki/Hocine\\_A%C3%AFt\\_Ahmed](https://fr.wikipedia.org/wiki/Hocine_A%C3%AFt_Ahmed) (검색일 2016.01.25)
- 33)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약 520km 지점의 서북쪽에 있다. 역사적으로 인종과 종교, 언어가 '교차와 혼성'을 해온 지역으로 베르베르, 아랍, 안달루시아, 오스만터키, 유럽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틀렘센은 '마그레브의 진주', '아프리카의 그라나다'라고 불리기도 한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 취임되자마자 첫 국민방문으로 이 지역을 택했을 정도로 알제리 내 권력의 핵심 지역이다.
- 34) 샤우이족은 오레스지역에 살고 있는 베르베르 일파이다. 오레스(Aurès) 지역은 알제리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사하라로 뻗어가는 지역의 초입에 있다. 베르베르이면서 베르베르의 정체성에 취약하지만, 최근 들어 정체성 회복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리 권력과 연대하며 알제리 내 권력의 정점에 서있다. 종족은 다르지만, 독립 투쟁과 아랍 이슬람화 정책을 추진하는 서부 지역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같은 베르베르인 카빌리와는 그리 호의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sup>35)</sup>

베르베르인의 정체성 찾기 운동을 말할 때 '베르베르의 봄(Berber Spring)'을 빼놓을 수가 없다. 1980년 4월 카빌리에서 대규모 반정부 투쟁이 벌어졌다. 알제리 정체성을 주장하며 티지우주 대학교에서 베르베르어 강의를 담당한 작가 몰루드 맘무리(Mouloud Mammeri, 1917~1989)의 강연을 취소시킨 게 도화선이 되었지만, 이후 베르베르어 문화에 대한 억압으로 카빌리 전체가 저항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카빌인은 뭉치기 시작했다. 이미 아랍 이슬람화 정책에 반감을 품던 프랑스 내 카빌인과 알제리인도 다양한 방식으로 알제리의 다문화적 정체성 회복에 참여하였다. 더 나아가 카빌인은 알제리 역사에서 자신들의 존재감,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Le printemps Berbères d'avril 1980 secoue fortement l'édifice institutionnel, idéologique algérien. Il pose, en premier lieu, le problème de la diversité des populations et de la définition culturelle en Algérie, mais aussi il permet de restituer l'histoire algérienne dans une autre dimension

(1980년 4월의 베르베르의 봄은 알제리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조합을 확실히 뒤흔들어 놓았다. 먼저 이 운동은 알제리에서 문화적 정의와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은 물론 다른 차원에서 알제리 역사를 회복하도록 하였다.)<sup>36)</sup>

1990년대 테러리즘 시대가 종식되고부터 <대국민 화합정책>의 일환으로

35) Pierre Bourdieu(1961), p.25.

36) Benjamin Stora(2004), p.298. 1980년을 전후한 프랑스와 알제리의 문화예술운동 주체들에 대해 사케르는 카빌인에게 있는 '문화주의의 맥'(Veine culturaliste) 때문이라 칭하고 있다. 미우라 노부타카, 『언어제국이란 무엇인가』, 이연숙 외 옮김, 돌베개, 2005. p.240-259.

1996년 베르베르어를 베르베르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항목으로 인정하였다. 2001년에는 타마지그트어(Tamazight, 알제리인이 베르베르어를 일컫는 말이다)를 국가어(national language)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모로코와 달리 공식어의 위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2014년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4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 위기, 마그레브 주변 국가의 정세 불안, 그리고 곳곳에서 테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2016년 헌법 수정 초안을 공개하였다. 헌법 수정 초안은 타마지그트어를 공식어로 격상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어 향후 베르베르 위상과 관련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sup>37)</sup>

### 3. 프랑스로의 이민과 카빌인 공동체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난 이후 1871년 카빌리에서 대규모의 봉기가 일어났다. 프랑스 식민당국은 카빌인의 토지를 박탈하였고 그로 인한 지역민의 상실감은 갈수록 커져갔다. 상권을 형성할만한 도심이 없던 대(大) 카빌리 지역의 카빌인은 알제리 전역을 포함하여 프랑스로의 이주까지 고민하게 된다. 식민지 경영인 콜롱(colon)은 자신들의 농장으로 카빌인을 데려와 일을 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카빌인은 콜롱의 농장에서 일하며 경영방식을 배웠고, 돈을 벌려는 의지도 강했다. 20세기 들어서는 프랑스 본국에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는 의지까지 있던 카빌인은 이주의 주 대상이 된다. 프랑스의 입장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게다가 카빌인은 다른 마그레브 국가 사람들과는 달리 프랑스어를 잘하기까지 했다. 행정적으로는 프랑스의 한 개 ‘도(道)’에 불과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별도의 규정 또한 적용받지 않았다. 당시에는 카빌인을 비롯한 알제리인 모두가 이동에 큰 제약이 없었다.<sup>38)</sup>

37) 수정 헌법 초안의 제3조 2항에서 “Tamazight est également langue nationale et officielle” (타마지그트어는 국어이자 공식어이다)라고 언급하였다. *Le Matin Algérie, Tamazight langue nationale et officielle, dites-vous?* 2016.01.05 (검색일 2016.01.20).

38) Maché Alain, *ibid.* p.291~296.

카빌인의 이주는 1906년 마르세유에서 발생한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파업을 대체할 인력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알제리 콜롱의 평가도 부정적이지 않았던 터라 이탈리아 노동자를 대체할 인력으로 카빌인 만한 노동자가 없었다. 카빌인은 주로 비누공장과 올리브 공장에서 일했다. 그들에게 올리브 재배와 가공 일은 이미 카빌리 지역에서 일상의 일이었기에 적응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sup>39)</sup> 프랑스 내 알제리 최초의 이주민과 노동자는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프랑스 북부 지역으로의 노동자 파견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 어쨌든 1920년대까지 알제리인의 프랑스 내 노동 이주는 5명 중 4명이 카빌인으로 이뤄졌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카빌인의 초기 프랑스 내 이주는 프랑스 현지 수요와 필요에 따른 노동자 파견이 목적이었기에 대개가 독신자였다. 이들은 일정 기간의 노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지역민보다 유대감이 강한 카빌인도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카빌인의 거주지는 열악하기 짝이 없어 공동체 조성을 해나가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당장의 생활을 꾸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체의 삶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20세기 초반 이주의 또 다른 특징은 전쟁으로 인한 징병이다.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성터의 군인으로 나섰지만, 이들 대부분은 전쟁 후 알제리로 돌아가 이주와는 그리 큰 상관관계를 이루지 않고 있다. 공동체는 생각조차 못했지만 프랑스로의 이주는 식민지배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증가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1947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였다.<sup>40)</sup>

초기의 이주민이 노동자로 혹은 전쟁 징병으로 파견된 것이었다면,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이주는 이전과는 달랐다. 이 시기에는 카빌인 위주의 이주에서 전체 알제리인으로서의 이주로 확장된 시기였다. 체계적이고 대규모인 알제리인을 프랑스 본국으로 보내다 보니 이주와 관련한 카빌인만의 통계 지표가 없었다. 게다가 법적으로 모두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알제리와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의 숫자를 특정 종족을 중심으로 집계하기란 사실상

39) 카빌리는 현재까지도 알제리 내 최대 올리브 생산 지역이다. Maralasky, Qui sont les Berbères de France?, 2011.01.31 (검색일 2016.01.21)

40) 박단, 『프랑스 공화국과 이방인들』,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p.151.

불가능했다. 이 시기에 전체 알제리 이민자 수를 통해 카빌인 이민자 수를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975년 이전까지 알제리인과 카빌인의 이민자 수 및 유형

연도	수 및 비율	이주/이민 유형
1871	수백 명	이민자라기 보다 카빌인 중 뛰어난 몇몇을 선발한 형태를 취함.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데, 프랑스와의 연결 고리 역할로 활용됨
1906	통계 없음	카빌인이 마르세유 올리브 공장과 비누 공장에 투입. 최초의 노동 이민
1914	13,000명	노동 인력으로 파견. 전체 알제리인은 대략 13,000명이었지만 그중 카빌인이 10,000명을 차지
1914~1918	270,000명	알제리 전역에서 1차 세계대전을 위한 병력과 노동자 동원. 전쟁 이후 본국으로 복귀. 순수 카빌인은 15,000명
1931	22%	20~50세 사이 카빌리의 티지우주 인구 22%가 프랑스에서 노동자로 생활. 대부분 독신 생활을 영위 <sup>41)</sup>
1947~1953	740,000명	이중 561,000명 알제리로 귀국. 185,000명만이 프랑스에 남음
1950	23,000명	이중 19,095명이 카빌인
1954	212,000명	절반 이상이 카빌인이며 카빌리 주변 도시에서도 프랑스로 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함 <sup>42)</sup>
1961	350,000명	프랑스 내무부는 알제리인을 436,000명으로 집계하여 크게 대조를 보임 <sup>43)</sup>
1975	900,000명	1974년 프랑스와 알제리 이민 금지

41) Jean-François Troin et al. (2006), p.346.

42) 이때까지만 해도 알제리인은 주로 카빌인이 차지했지만 이후에는 알제리의 오랑, 콩스탕틴, 세티프 심지어 사하라 출신의 이주민이 다수 형성되는 게 특징으로 보인다. David Assouline, Medhi Lallaoui(s.d), (1997), p.14. 전후 프랑스에서 알제리인의 전반적인 이민자 경향과 특징에 대해서는 박단, 위의 책, p.152.

43) 이런 차이는 알제리 독립 후인 1962년 인구조사 때조차 <누가 알제리인인가>의 문제, 즉 알제리인은 알제리인인가 아니면 프랑스인인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조사 때도 이런 혼동 양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David Assouline,

19세기 말에서 1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이주가 정치·군사적 측면과 상업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면,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카빌인의 이주 경향은 달라졌다. 카빌인 스스로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온 것도 있지만, 콜롱을 비롯한 알제리 내 지역 유지,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고용주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주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영광의 30년>이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프랑스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자연스레 카빌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주민의 수가 때로는 저평가되기도 했지만, 1950년대와 1961년을 전후한 시기 카빌리 지역의 성인 30~40%가 외국, 특히 프랑스로 이주했을 정도로 증가했다. 알제리 전역으로 이주를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카빌리 지역민이 여전히 많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이민의 형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이들 카빌인들의 프랑스 내 정착은 주로 수도 파리와 일드 프랑스 및 당시 직물 산업이 발달한 리옹 근교와 프랑스 북부 지역 등에 집중되었다. <표 1>에서 제시한 1950년 한 해 동안의 프랑스 내 알제리인과 카빌인의 이주 분포를 보면 당시 얼마나 많은 카빌인이 프랑스에 왔고,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나갔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sup>45)</sup> 분포 상황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50년 프랑스 내 지역별 알제리인과 카빌인의 수

지역	알제리인 전체 이민자 수	카빌인 이민자 수
센느(Seine)	12,062	9,349
모젤(Moselle)	1,587	1,422
론느(Rhône)	1,299	1,499
북쪽(Nord)	2,304	1,295

Medhi Lallaoui(s.d), p.16.

44) Jean-François Troin et al., *ibid.* p.346.

45) 선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현재도 이들 지역에 가장 많은 카빌인이 거주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민 2, 3세대가 이어지면서 카빌인 특유의 집단 거주 방식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베르베르 공동체가 이들 지역에 분포해 있는 것도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들의 생활 여건과 정치적 성향, 실업률, 해당 지역의 게토화 등 소위 프랑스 내 이민자의 현재 문제는 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알제리인 전체 이민자 수	카빌인 이민자 수
가르(Gard)	956	835
르와르(Loire)	764	764
뫼르트/모젤(Meurthe et Moselle)	477	477
센느마리팀(Seine-Maritime)	399	399
아르덴느(Ardennes)	160	160
앵(Ain)	130	130
이제르(Isère)	234	126
와즈(Oise)	125	125
센느/와즈(Seine et Oise)	120	120
사부아(Savoie)	102	102
부슈뒤론느(Bouches du Rhône)	2,292	2,292

(출처 : <http://encyclopedieberbere.revues.org/1428>)

독립은 알제리인의 이민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독립 이전 프랑스에서 알제리인은 적어도 ‘프랑스령 알제리’의 시민이었고, 법률적으로도 프랑스인이었다. 하지만 1962년 이후에는 별도의 국적(프랑스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다 가족과의 재회까지 이뤄져 더 많은 알제리인과 카빌인이 증가했다. 당연히 프랑스 국적 소유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민을 통해 형성된 알제리인, 특히 카빌인은 프랑스 내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현재 프랑스 국적의 알제리 출신자는 대략 3백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6)</sup> 이들 중에서도 40%가량이 알제리 베르베르어권 출신자, 그중에서도 카빌인이 대부분이다. 프랑스의 베르베르어 화자를 최고 2백만 명 정도로 추산할 때 2/3(120~130만 명)가량이 알제리 출신이고, 나머지를 모로코 출신으로 추산하고 있다. 리비아, 튀니지, 니제르, 말리 출신의 베르베르어 화자도 있지만,

46) 국립 경제 조사 및 통계청(INSEE)에 의하면, 이중 수도 파리에만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알제리인은 2012년 455,650명으로 집계되었다. *Algérie-Focus, France/Les Algériens, première communauté étrangère à Paris*. 2015.09.23 (검색일 2016.01.24)

그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La langue berbère dans ses variantes est la deuxième langue la plus parlée de France. Ils sont entre 1,5 et 2 millions de personnes à communiquer dans cette langue nord-africaine.

(다양한 형태의 베르베르어는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다. 북아프리카의 이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백 5십만 명에서 이백만 명으로 추산된다.)<sup>47)</sup>

1974년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은 7월 법안을 통해 정치적 망명자를 허용하고 마그레브 무슬림들의 귀국을 권장하는 <가족 재결합 정책>(Le regroupement familial)을 실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빌인과 알제리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족과 재결합하면서 이민자 수(특히 여성과 젊은층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가족 재결합은 알제리와 프랑스에 있는 카빌인의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나마 프랑스로 이주해 간 카빌인의 송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지만, 가족 재결합 정책은 오히려 본국으로의 송금을 가로막았다. 가족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송금이 예전만 못하다 보니 카빌리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송금이 막히고, 가뜩이나 밀집된 지형에다 열악한 경제구조는 카빌리 경제를 더욱 위축시켰다. 알제리 중앙정부는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카빌리에 대한 정책적 배려(전반적으로 베르베르 정책)를 하기보다는 아랍 이슬람화 정책을 밀어붙여서 카빌인의 분노를 사게 된다. 실제 독립 후 알제리에서는 아랍 이슬람화 정책이 탈식민화를 위한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어 카빌인이 느끼는 소외감은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부터 시작된 카빌인의 반정부 투쟁은 우연이 아니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카빌리의 베르베르운동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한 프랑스 내 베르베르 공동체와 더불어 힘을 발휘했다.

프랑스에서도 가족 재결합으로 공동체적 성격을 유지하기 시작한 카빌인

47) 1999년 Comité consultatif pour la promotion des langues régionales et de la pluralité linguistique interne에 의한 통계. Algérie-focus, Le Berbère : deuxième langue parlée en France. 2013.07.24 (검색일 2016.01.02)

은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운동에 뛰어들었다. 수십 년 동안 보아 온 프랑스의 사회제도, 노동조합 등도 카빌인의 정치·문화적 행위에 영향을 주었다. 카빌인은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자신들의 (특별히 언어를 통한)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아랍화 정책의 경우는 모국에 대한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아랍화에 반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하였다. 가족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단위가 되고, 알제리 정부의 아랍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집합소가 된 것이다. 카빌인을 위시한 베르베르인에게 가족 재결합은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베르베르 공동체가 출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실제 표2)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지역에서 베르베르 공동체가 현재 수십 개씩 달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준다.

베르베르공동체의 정체성 찾기 운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사용이다. 이미 가족 재결합 이전에도 카빌인은 아랍어 보다 카빌어 사용에 적극적이었다.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아랍어를 배우는 수는 극히 미미했다.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론의 장에서 카빌어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카빌인은 아랍어보다 카빌어를 더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언어사용 습관은 이미 카빌리에서는 오랜 관행과도 같은 것이다. 카빌리는 알제리 내에서도 카빌어, 아랍어, 프랑스어가 사용되는 지역이고, 특히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카빌인은 카빌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48)</sup>

Dans la période 1930-1962, de nombreux Kabyles ont donc appris l'arabe en France, au contact de leurs compatriotes arabophones, pourtant alors minoritaires!

(1930-1960년대 수많은 카빌인은 프랑스에서 아랍어를 동료들로부터 배우긴 했지만 그 수는 소수였다!)<sup>49)</sup>

카빌인은 출판이나 대학 진학 및 교재 발간, 음악 간행물을 카빌어로 발간

48) 학교, 거리, 행정 기관, 가정 등에서 카빌인의 3개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Benmokhtar, Farid(2013) 참조.

49) Salem Chaker, 「Pour une histoire sociale du berbère en France」, Les Actes du colloques Paris Inalco, 2004.

하기 시작했다. 또한, 다른 베르베르족과 연대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면서 프랑스 내의 영향력을 조금씩 확산시켜갔다. 특히 음악의 경우 현지 카빌리에서는 할 수 없던 음반 제작 등을 해가며 프랑스 내 베르베르 문화 확산에도 일조했다. 제작된 음반은 라디오를 통해 베르베르인에게 전파되었다. 결국,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1972년까지 프랑스에 베르베르어(특히 카빌어와 슬뢰호어) 라디오 방송 채널이 있게 되었다. 라디오는 당시 베르베르 문화를 만들어내고, 언어 사용을 촉진시킨 매체였다. 1981년부터 공영 라디오 방송은 사라지고 민간 라디오 방송이나 베르베르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라디오 방송이 카빌어로 진행되기도 했다. 1990년대 시설 TV 채널까지 생기면서 베르베르어는 프랑스 내에서도 언어 습득과 베르베르 문화 전파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1966년 파리에서 창설된 '베르베르 아카데미'(Académie Berbère, 카빌어로 Agraw imaziyen)는 언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 운동을 주도했다. 이 단체는 1912년 카빌인에 의해 창설된 '젊은 알제리인'이 그 모태를 이루고 있으며, 베르베르어의 사용을 여러 매체에서 촉구하며 장려하는 활동을 했다.<sup>50)</sup> 1979년 베르베르문화협회(Association de Culture Berbère, ACB)는 문화예술 운동을 통해 프랑스 내 베르베르 운동을 주도해갔다. 현재는 베르베르 단체가 지역별로 문화운동을 주도해가고 있다.<sup>51)</sup> 이렇듯 여러 베르베르 관련 단체가 있지만 카빌리는 물론 마그레브 베르베르어 연구가 공론의 장으로 들어온 데는 '베르베르 아카데미'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다.

프랑스에서 베르베르 문화 운동은 기나긴 이주와 이민의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문화주의의 맥'을 가진 카빌인이 문화예술과 교육 사업에서 실질적인 두각을 드러낸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는 카빌인 만의 전통이 있었기에 베르베르 운동이 프랑스와 알제리에

50) 오늘날 마그레브의 모든 베르베르인이 사용하는 표준 알파벳도 이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모로코가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현재 33개의 자모음 체계를 확립해 놓았다.

51)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현지 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프랑스 내 베르베르 공동체는 약 800~1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한다. 단체별로 언어 강의, 예술 활동, 문화운동, 음식 등 다양한 형태의 베르베르 정체성 찾기 운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 내 소수자 운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서 자리잡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카빌리는 그들만의 혈연관계와 사회적 응집력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공동체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갈 수 있었다.<sup>52)</sup> 프랑스에서 다시 알제리를 가거나 다른 이주 지역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파리에서도 카빌인 만의 공동체는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 수년 전 형성되기도 했다. 이주와 이민,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을 통해 소수이지만 카빌인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프랑스와 알제리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구축해가고 있다. 알제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타마지그트어가 공식어가 되리라는 것은 이들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 프랑스에서 베르베르어가 비영토어이면서 프랑스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모국어 사용자를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일 것이다.

#### IV. 나가는 말

프랑스는 잘 알려졌듯이 다문화 국가이다. 다문화 국가이지만 프랑스인이 주류가 되고 이민자나 난민 등이 비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프랑스 내에서 종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마그레브 이민자는 소수이자 비주류이다. 이들은 늘 프랑스 내의 잠재적 불안 요소이면서 공존의 대상이 되고 있다.

흔히 프랑스 내의 이민자를 말할 때 비주류인 마그레브 이민자를 언급하지만 정작 마그레브의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이나 카빌인의 존재는 언급하지 않는다. 게다가 프랑스 내에서는 카빌인이 알제리의 베르베르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아랍-마그레브인’이라고 섞어 말한다. 하지만 베르베르어가 프랑스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모국어 화자를 갖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52) 이는 카빌리에서만 존재하는 타지마트(Tajimat)의 역할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타지마트는 현대화 된 카빌리에서 여전히 부족단위나 혈연관계, 교육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카빌리의 통치 기구로 현지에서는 알제리 중앙 정부에 맞서는 조직체와도 같다. 카빌인은 어딜 가든 이 조직의 틀 안에서 움직이며, 공동체를 구성해간다. Maché Alain, *ibid.* p.78-116.

프랑스의 지역어인 알자스어보다 2배 이상의 베르베르어 화자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언어가 영토어가 아닌 비영토 언어임에도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프랑스의 이 문화를 말할 때 늘 영토어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21세기 프랑스문화의 정체성은 달라지고 있다. 본고에서 비영토어와 이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누구인지를 주목한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 결과 프랑스와 마그레브에 관련한 무수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베에 누아’, ‘하르키’, ‘마그레방’, ‘베르베르’, ‘카빌’ 등 프랑스와 마그레브 지역 간 관계를 맺고 있는 언표들은 기존의 프랑스 내 브르타뉴, 알자스, 프로방스 등의 지역이 갖고 있던 특징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비영토어 사용자인 카빌인에 주목했다. 카빌인의 프랑스 내 정착은 현대사회 들어 여러 의미가 있다. 먼저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베르베르학’(베르베르어 문화를 비롯한 지역학 연구)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베르베르학’의 연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베르베르 이민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었다. 다음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카빌인의 본 고장 알제리에서 베르베르 정체성 찾기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알제리에서는 1999년 이래로 타마지그트어를 국가어로 격상시켰지만, 카빌인과 여타 베르베르인은 타마지그트어의 공식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알제리 내 베르베르인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프랑스 내 카빌인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베르베르 문화운동이 프랑스 내에서 퍼져가는 과정과 위상, 현재 베르베르학의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단지 ‘베르베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프랑스 내 소수자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와 지역별로 카빌인 공동체의 분포 상황이 어떤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카빌인이 본국 알제리의 베르베르 문화운동을 프랑스 내 카빌인과 어느 정도로 연계시켜 투쟁해갈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왜냐하면, 카빌리, 나아가 베르베르인의 반정부 투쟁 정도에 따라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알제리 내 정세 변화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리비아와 튀니지에서 우리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카빌인은 역사 속에서 분명 ‘소수자’였다. 하지만 ‘교차와 혼성’ 과정에서 응결된 이들은 프랑스 내의 문화 지평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알제리에서 공식어의 위상이 단지 구호에 불과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다.

## ❖ 참고 문헌

- 미우라 노부타카, 『언어제국이란 무엇인가』, 이연숙 외 옮김, 돌베개, 2005.
- 박단, 『프랑스 공화국과 이방인들』,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 브누와 브레빌, 「이슬람포비아의 위협성」,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5.02.
- 아민 말루프, 『사람잡는 정체성』, 박창호 옮김, 이론과 실천, 2006.
- 임기대, 「최근 알제리정부의 개각에 나타난 권력 질서 변화와 한-알제리 경험과의 관계」, 『프랑스학연구』 제67집, 2014.
- 임기대, 「베르베르어 사용 관련 정책 현황과 변화 가능성에 관한 소고 : 알제리의 경우를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제74집, 2015.
- 임기대, 「부테플리카 대통령 집권기(2005~2014)의 개각을 통해 본 알제리 내 권력 구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93집, 2016.
- 시오노 나나미, 『로마멸망 이후의 지중해세계 I/II』, 한길사, 2009.
- Benjamin Stora, *Histoire de l'Algérie coloniale (1830-1954)*, La Découverte. 2004.
- Benmokhtar, Farid, *Le code switching en Kabylie: Analyse du phénomène de mélange de langues*, L'Harmattan, Paris. 2013.
- Camille Risler, *La politique culturelle de la France en Algérie : Les objectifs et les limites (1830-1962)*, L'Harmattan. Paris. 2004.
- David Assouline, Medhi Lallaoui(s.d), *Un siècle d'immigration en France : 1945 à nos jours*, Paris: Syros. 1997.
- Direche-Slimani, K, Kabylie, *L'émigration kabyle : Entre tradition économique et histoire politique*, Encyclopédie berbère, p.4046-4050

- Jean-François Troin et al, *Le grand Maghreb : Algérie, Libye, Maroc, Mauritanie, Tunisie : mondialisation et construction des territoires*, Armand Colin. 2006.
- Pierre Bourdieu, *Sociologie d'Algérie*, PUF, Paris. 1961.
- Maché Alain, *Histoire de la grande Kabylie, XIXe-XXe siècle*, Editions Bouchènes. 2006.
- Salem Chaker, "Pour une histoire sociale du berbère en France", Les Actes du colloques Paris Inalco. 2004.

Algérie-focus, Le Berbère : deuxième langue parlée en France. 2013.07.24 (검색일 2016.01.02)

Algérie-Focus, France/Les Algériens, première communauté étrangère à Paris. 2015.09.23 (검색일 2016.01.24)

El Watan, Constitution : Tamazight langue nationale et officielle, 2016.01.05 (검색일 2016.01.07).

Le Matin Algérie, Une radion kabyle en France, 2008.08.10 (검색일 2016.01.12).

Le Matin Algérie, Tamazight langue nationale et officielle, dites-vous? 2016.01.05 (검색일 2016.01.20).

Le Monde, Ka Kabylie est une terre de résistance à l'islamisme, 2014.10.01 (검색일 2016.02.02)

Maralasky, Qui sont les Berbères de France?, 2011.01.31 (검색일 2016.01.21)

<http://www.afstudy.org/>

[http://www.cbf.fr/uploaded/PDF/immigration\\_berbere\\_en\\_France.pdf](http://www.cbf.fr/uploaded/PDF/immigration_berbere_en_France.pdf)

<http://intht-tiziouzou.e-monsite.com/>

[https://fr.wikipedia.org/wiki/Hocine\\_A%C3%Aft\\_Ahmed](https://fr.wikipedia.org/wiki/Hocine_A%C3%Aft_Ahmed)

<https://fr.wikipedia.org/wiki/Kabyles>

<http://encyclopedieberbere.revues.org/1428>

<http://www.bibliomonde.com/livre/histoire-emigration-kabyle-france-au-xxe-siecle-4178.html>

❖ ABSTRACT

## A Study on the Migration of the Berbers in France and their Current Status

Lim, Gi-Dae

The issue of migrants has always been a social problem in France. Particularly, migration issues from the Maghreb region to multicultural France are recognized as topics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One of the many reasons would be that the Maghreb migrant issue is interpreted with a hostile or conflicting ‘Arab-Islam’ meaning in the West. Therefore, the naming of natives from this region as ‘Arab-Maghrebis’ has become a common phenomenon. However,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aghreb region will explain that such naming could produce a number of problems. This is because the native Maghrebis, not only in the Maghreb region but also in France, are Berbers. Among the various Berbers, the Kabyles are in many ways different from the Arabs in their language, culture, and way of thinking. Apart from the difference in their lifestyle, there is a deep anti-Arab sentiment within them that represents their resistance against the hundreds-of-years Arab domination. This feature has also been used as France’s tool of colonial division policy during the colonization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Kabyles in France by paying attention to their features. The Kabyles were the first to migrate to France among the natives of the Maghreb reg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cess of their migration and search for identity, as well as how they continued to form community and the Berber’s cultural movement. Through these series of processes, it is possible to point out the fictitious claim in France and in Korea that Maghrebis are Arab-Muslims. Lastly, the current use of Berber language in France and Algeria is not a coincidental phenomenon, rather it has a connection with the prolonged cultural movement and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migrants in France.

---

**Key Words**

Berber, Kabyle, France, crossing and hybridity, migration/immigration

논문접수일: 2016년 02월 09일

심사완료일: 2016년 03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3월 10일